

## 芍藥의 補瀉 효능에 대한 고찰 - 역대 문헌의 논설을 중심으로 -

<sup>1</sup>慶熙大學校 大醫院 基礎韓醫學科 大學生 · <sup>2</sup>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教授  
林錫賢<sup>1</sup> · 丁彰炫<sup>2</sup> · 張祐彰<sup>2</sup> · 白裕相<sup>2\*</sup>

### A Study on the Reinforcing/Reducing Effects of Shaoyao

#### -Focusing on Discussions from Classical Medical Texts-

Lim Seok-hyeon<sup>1</sup> · Jeong Chang-hyun<sup>2</sup> · Jang Woo-chang<sup>2</sup> ·  
Baik Yousang<sup>2\*</sup>

<sup>1</sup>Graduate Student at 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up>2</sup>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suggest an integrated explanation for the contrary reinforcing/reducing effects of Shaoyao.

**Methods** : From a list of books on the history of herbology and Chinese Medicine as mentioned in the herbology textbook, main texts were selected for further examination, along with some books of the Four Masters of the Jin Yuan period and some general medical texts. These texts were thoroughly examined with keywords such as Shaoyao, Baishaoyao, Chishaoyao, Baishao, Chishao, out of which contents on reinforcing and reducing were selected and analyzed. Next, explanations of the mechanisms of the contrary effects that were found through categorization of the reinforcing and reducing effects were examined. Among the contrary effects, similarities were uncovered and further studied for deduction of an encompassing higher level mechanism.

**Results & Conclusions** : Overall consideration of the contrary effects of Shaoyao revealed that its working mechanism is to collect qi in the yin-blood part through convergence to control qi among blood, to help smooth flow of blood, eliminate blood stagnation and reinforce blood production which in turn cools down heat.

**Key words** : shaoyao, paeonia lactiflora pallas, reinforcing efficacy, reducing efficacy, classical medical texts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26, E-mail : baikys@khu.ac.kr

Received(August 7, 2020), Revised(August 10, 2020), Accepted(August 10,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본초 가운데에는 효능이 서로 상반된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약재들이 있다.芍藥도 그 가운데 하나이며, 다른 약들에 비해서芍藥의 상반된 효능은 같이 공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제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역대 문헌에서芍藥의 상반된 효능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證類本草』에서는『神農本草經』의“散惡血, 逐瘀血”을 인용하면서益好血이라 하여散惡血과補血하는 효능을 함께 언급하였다.『日華子本草』에선治風補勞라 하여風을 없애면서補勞할 수 있는 것으로, 또退熱除煩, 益氣라 하여熱을瀉하면서氣를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반된 효능은白補赤瀉라 하여白芍藥은補하고赤芍藥은瀉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赤芍藥과白芍藥은『本草經集注』에서 처음 구분되었고,『湯液本草』에서 처음으로白補赤瀉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湯液本草』이후 문헌은白補赤瀉의 구분에 따라赤芍藥과白芍藥의 효능을 구분한 문헌과 구분하지 않은 문헌으로 나눌 수 있었다.赤芍藥과白芍藥의 효능을 구분하지 않은 문헌은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赤芍藥과白芍藥이 한 종류이며1) 구분할 필요없다는 문헌들2)과赤芍藥과白芍藥이 구분되기 이전의 문헌인『神農本草經』,『傷寒論』과『金匱要略』을 기반으로芍藥의 효능을 분석한 문헌3)들이 있었다.赤芍藥과白芍藥의 효능을 구분한 문헌 또한 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赤芍藥과白芍藥의 효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문헌들4)과赤芍藥과白芍藥의 효능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芍藥의 공통 효능을 제시한 문헌들이5) 있었다. 교과서에서

는赤芍藥과白芍藥의 효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었다. 중국의 본초교과서인中藥學서적6)에 따르면赤芍藥의 효능은清熱涼血·散瘀止痛으로,白芍藥의 효능은養血調經·斂陰收汗·柔肝止痛으로 되어있으며, 한국의 본초교과서7)도 마찬가지로赤芍藥은 중국교과서와 동일하고白芍藥은養血柔肝·緩中止痛·斂陰收汗이라는 내용으로白補赤瀉로 분리되어 설명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赤芍藥과白芍藥의 효능을 명백히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고赤芍藥과白芍藥의 효능을 명백히 구분하지 않는 의견이 있기도 하였다. 참고로赤芍藥과白芍藥의 기원이 중의학교과서와 본초학교과서에서 각각‘毛茛科植物芍藥의 뿌리’와, ‘Paeonia lactiflora Pallas’로 같다.

이러한芍藥의 상반된 효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크게 분류해보면,『傷寒論』처방을 분석하여芍藥의 효능에 대한 연구나赤芍藥과白芍藥의 효능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傷寒論』처방을 분석하여芍藥의 효능을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傷寒論』處方 속의芍藥效能에 대한研究’에서는芍藥의 효능이陰液을 공급하여 적서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배합된 약물에 따라 상반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8). ‘『傷寒論』芍藥破陰結功用探析’에서는 교과서의“芍藥酸斂, 和營益陰”의 효능에 국한되었던 안 되며『神農本草經』의芍藥의 기미와 효능 및『傷寒論』중芍藥의 응용은 모두 공통적으로 통하고 깨뜨리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였다9). 또 ‘『傷寒論』方芍藥功用補遺’에서는『傷寒論』에서芍藥의 효능이健脾利水와拘急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방들을 통해

1) 張志聰 著, 劉小平 点校. 本草崇原.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8. p.73. “又謂, 白芍, 赤芍各爲一種, 白補赤瀉, 白收赤散, 白寒赤溫, 白入氣分, 赤入血分, 不知芍藥花開赤白, 其類總一.”  
2) 陳士鐸 著, 柳長華, 徐春波 校注. 本草新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100. “芍藥, … 能瀉能散, 能補能收, 赤白相, 無分彼此. 其功全在平肝”  
3) 이에 해당하는 문헌은『神農本草經百種錄』,『本草乘雅半偈』,『長沙藥解』,『本經疏證』,『本草思辨錄』 등이 있었다.  
4) 이에 해당하는 문헌은『本草經疏』,『本草從新』 등이 있었다.  
5) 汪昂 著, 張一昕 点校. 本草備要.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7. p.48. “赤芍藥主治略同, 尤能瀉肝火”

張景岳 著. 校勘 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2004. p.1021. “芍藥 … 味微苦微甘略酸, 性頗寒. 氣薄於味, 斂降多而升散少, 陰也. 有小毒. 白者味甘, 補性多. 赤者味苦, 瀉性多.”  
6) 張恩勤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0. pp.121-123, 417-419.  
7)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237,635.  
8) 방정균. 『傷寒論』處方 속의芍藥效能에 대한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1). pp. 47-58.  
9) 郭振環, 曲夷. 『傷寒論』芍藥破陰結功用探析.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16. 40(1). pp.26-27.

간단히 설명하였다<sup>10)</sup>. 위의 연구들은 역대 문헌을 분석하지 않고 『神農本草經』과 『傷寒論』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白芍藥功用辨析’에서는 白芍藥이 益陰과 利水, 澀止와 通瀉, 收斂과 開破, 潛降과 升補, 活血과 止血의 상반된 작용이 있음을 언급하며 본초서와 의가들의 논설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두 쌍을 이루는 효능을 조절하는 작용[調解]으로 보았다<sup>11)</sup>. 이 연구는 상반된 작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 나열에만 그쳤고 이 상반된 작용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깊은 고찰 없이 조절하는 작용으로 간단히 결론을 지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赤芍藥과 白芍藥의 효능 차이에 대해서 연구는 다음과 같다. ‘古代本草著作中白芍赤芍之研究’는 역대 문헌 조사를 통해 赤芍藥과 白芍藥이 성미, 귀경, 효능 주치들이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sup>12)</sup>. 이 연구는 역대 문헌을 연구했으나 문헌의 내용을 단순 인용하는 데에 그쳤다. ‘芍藥白芍赤芍의 歷代本草考證淺析’은 적백 芍藥의 구별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으며, 역대 의가들은 赤芍藥과 白芍藥의 기미를 비교적 동일하나, 명청대 이후로 赤芍藥과 白芍藥의 기미와 효능이 명확히 구분되었다고 하였다<sup>13)</sup>. ‘赤芍白芍古今應用探究’에서는 역대로 赤芍藥과 白芍藥이 감별법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나열하였으나 어느 것이 맞는 감별법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효능 차이는 약리학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한계가 있다<sup>14)</sup>. 赤芍藥과 白芍藥의 효능 차이에 대한 연구들은 赤芍藥과 白芍藥의 상반된 작용에 대한 통합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芍藥氣味功效芻議’에서는 芍藥이 酸寒하다는 것에 대해서 芍藥을 직접 혹은 湯으로 맛보았을 때 酸味が 아니라고 하였고, 『神農本草經』와 『傷寒論』을 분석하여 芍

藥의 효능이 酸寒이 아니며 苦平하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기타 芍藥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실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기존 연구들은 芍藥이 상반된 여러 효과를 갖는다는 것까지는 인식하였으나 그 기전을 밝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상반된 효능의 기전을 밝힌 연구들도 참고한 문헌의 연대가 부분적이라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대 본초 문헌을 기반으로 芍藥의 상반된 효능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문헌 검토 결과 상반된 효능에 대한 소주제로 補瀉, 收斂, 禁忌, 氣味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補瀉가 관련 내용의 양이 많고 효능에 대한 설명이 포괄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를 芍藥의 상반된 補瀉 효능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문헌은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먼저 본초교과서<sup>16)</sup>의 본초사와 중국의학사 서적들<sup>17)</sup>을 참고하여 주요 본초서 목록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 현재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는 것을 배제하였다. 총 목록 49개 중 확실하게 산실된 것이 확인된 4가지를 제외하고 원문을 찾을 수 없는 서적은 13개로, 32개의 서적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반영된 본초서의 비율은 약 71%에 달한다. 또한 臟腑補瀉法이 유행했던 金元四大家 의서들과<sup>18)</sup> 종합의서 중 『醫學入門』, 『東醫寶鑑』, 『景岳全書』도 역시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이들 문헌에서 芍藥, 白芍藥, 赤芍藥, 白芍, 赤芍을 키워드로 하여 모든 내용을 검토한 뒤, 補瀉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역대 문헌을 통해 芍藥의 補瀉 효능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내

10) 陳文照. 『傷寒論』方芍藥功用補遺. 浙江中醫學院學報. 1991. 1. pp.7-8.  
11) 楊學峰. 白芍藥功用辨析. 中國中醫藥報. 2003-05-01.  
12) 小熊亮子. 古代本草著作中白芍赤芍之研究. 北京中醫藥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13) 劉萍. 芍藥白芍赤芍의 歷代本草考證淺析. 中華中醫藥雜誌. 2018. 33(12). pp.5662-5665.  
14) 祝之友. 赤芍白芍古今應用探究.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6. 14(12). p.142.

15) 李華, 姜秀清. 芍藥氣味功效芻議. 國醫論壇. 1996(01). pp. 41-42.  
16)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44-70.  
17)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p.276,348-349.  
18) 검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儒門事親』, 『素問 病機氣宜保命集』, 『素問 玄機原病式』, 『醫學啓源』, 『丹溪心法』, 『局方發揮』, 『蘭室秘藏』,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珍珠囊藥性賦』.

용은 일단 배제하고 원출전의 내용만을 남겼다.

이 가운데 補瀉의 대상이나 補瀉의 결과가 상반되어 공존하기 힘든 효능을 위주로 원문을 다시 선별한 이후, 상반되는 효능을 직접 일으키거나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추가적 작용에 관한 내용을 전체 대상 문헌에서 다시 발췌하여 함께 검토하였다. 이어서 상반된 효능에 대한 작용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약약의 상반된 효능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는 처방 연구 및 임상응용에서 芍藥의 효능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상반된 효능을 갖는 다른 본초를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본론

### 1. 補瀉 관련 문헌 내용 분석

芍藥의 효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補瀉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補法은 正氣를 돕는 것으로, 陰陽, 臟腑나 精氣神血津液의 인체 구성요소를 補益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瀉法은 邪氣를 몰아내는 것으로, 크게 유형의 담음계열(痰飲, 水氣)과 아혈계열, 무형의 風·寒·熱·濕, 鬱滯 등을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역대 문헌들 가운데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원출처의 내용만 기재하였다.

#### 1) 神農本草經 (B.C. 3세기경)<sup>19)</sup>

芍藥 … 主治邪氣腹痛, 除血痺, 破堅積, 寒熱, 疝瘕, 止痛, 利小便, 益氣.

補로서 益氣를 언급하였고, 나머지 治邪氣腹痛, 除血痺, 破堅積, 寒熱, 疝瘕, 止痛은 邪氣를 몰아내는 瀉法에 해당한다.

#### 2) 本草經集注 (A.D. 492~505)<sup>20)</sup>

19) 孫馮翼, 孫星衍 輯錄. 神農本草經. 台北. 五州出版社. 1969. p.卷二·9.

芍藥 … 通順血脈, 緩中, 散惡血, 逐賊血, 去水氣, 利膀胱大小腸, 消癰腫, 時行寒熱, 中惡, 腹痛, 腰痛.

今出白山, 蔣山, 茅山最好, 白而長大, 餘處亦有而多赤, 赤者小利.

血에 있어서 散惡血, 逐賊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머지 消癰腫, 時行寒熱, 中惡, 腹痛, 腰痛은 邪氣를 몰아내는 瀉法에 해당한다. 白芍藥과 赤芍藥을 최초로 구분하였으며, 白芍藥이 좋고 赤芍藥이 小利하다고 하였다. 小利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한데, 赤芍藥이 조금 이롭다는 것과 赤芍藥이 조금 通利하다는 것이다. 赤者小利라는 문구 앞에 產地와 형태에 따른 품질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효능 설명인 ‘조금 通利하다’는 뜻보다 ‘조금 이롭다’는 뜻으로 해석하는게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3) 藥性論 (A.D. 618 ~ 907)<sup>21)</sup>

芍藥, 臣. 能治肺邪氣, 腹中痛, 血氣積聚, 通宣臟腑擁氣, 治邪痛敗血, 主時疾骨熱, 強五臟, 補腎氣, 治心腹堅脹, 婦人血閉不通, 消瘀血, 能蝕膿.

芍藥이 臣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通法으로 婦人血閉不通, 通宣臟腑擁氣한다고 하였다. 瀉法으로 治肺邪氣, 心腹堅脹이, 補法으로 強五臟, 補腎氣가 새 로 등장하였다.

#### 4) 日華子本草 (A.D. 968~975)

芍藥 治風補勞, 主女人一切病, 并產前後諸疾, 通月水, 退熱除煩, 益氣, 天行熱疾, 癩瘡驚狂, 婦人血暈, 及腸風瀉血, 痔, 發背瘡疥, 頭痛, 明目, 目赤胬肉. 赤色者多補氣, 白者治血.<sup>22)</sup>

20) 陶弘景 著,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輯校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67.

21) 『證類本草』에서 인용. 唐慎微 著, 郭君双, 金秀梅, 趙益梅 校注. 證類本草(臨牀經典名著).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237.

22) 日華子 著. 尙志鈞 輯校. 日華子本草 蜀本草 合刊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58-59.

赤者補氣, 白者補血.<sup>23)</sup>

芍藥이 治風과 補勞를 한다고 하여 補瀉가 결합되어 있었다. 腸風瀉血, 痔, 發背瘡疥, 頭痛의 風으로 인한 증상과 婦人血暈, 明目, 目赤胛肉 의 血로 인한 증상을 치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益氣의 앞뒤로 退熱除煩, 天行熱疾, 癩瘡驚狂라는 서술이 있어 益氣가 陰氣일 가능성도 있다. 적백의 효능을 赤色者多補氣, 白者治血으로 구분하였다. 白者治血은 『本草綱目』에 인용되면서 白者補血로 바뀌었다.

#### 5) 證類本草 (12세기)<sup>24)</sup>

芍藥 … 唐本注, 益好血.

芍藥이 좋은 血을 더한다고 하였다. 芍藥의 補血 효능이 최초로 언급되었다.

#### 6) 素問 病機氣宜保命集 (A.D. 1186)<sup>25)</sup>

芍藥之酸澁, 除胃中之濕熱, 四肢困.

胃 속의 濕熱을 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 7) 醫學啓源 (A.D. 1186)<sup>26)</sup>

(肝) 瀉以白芍藥之酸 … 實則芍藥, 瀉之 … 肺欲收以酸 白芍藥也 … 白芍藥瀉肝火 … 白芍藥, 氣微寒味酸, 補中焦之藥, … 其用有六, 安脾經一也. 治腹痛二也. 收胃氣三也. 止瀉利四也. 和血脈五也. 固腠理六也. 又云 酸苦, 陰中之陽, 白補赤散, 瀉肝補脾胃.

白補赤散이라고 구분하며 瀉肝補脾胃라는 효능을

제시하였다.

#### 8) 蘭室秘藏 (A.D. 1276)<sup>27)</sup>

白芍藥 酸寒, 寒能瀉火, 酸味能瀉肝, 而大補肺金, 所補得金土之位, 金旺火虛, 風木何由而來剋土, 然後瀉風之邪.

白芍藥이 肺金을 보하여 風邪를 瀉하는 기전을 설명하였다.

#### 9) 脾胃論 (A.D. 1249)<sup>28)</sup>

以芍藥之酸, 於土中瀉木爲君. 飴糖·灸甘草甘溫補脾養胃爲臣. 水挾木勢亦來侮土. 故脈弦而腹痛, 肉桂大辛熱, 佐芍藥以退寒水.

土중 木을 瀉하고 寒水를 물리친다는 표현이 보인다. 小建中湯方에서 寒水를 물리치는 것은 肉桂와 함께 사용했을 경우이다. 芍藥 자체의 효능이 아닌 다른 약제와 배합시의 효능이다.

#### 10) 湯液本草 (A.D. 1298)<sup>29)</sup>

(芍藥) 「心」云, 脾經之藥 … 扶陽而收陰氣, 泄邪氣. … 東垣云, 芍藥能停諸濕而益津液, 使小便自行, 本非通行之藥, … 『難經』云, 損其肝者緩其中, 卽調血也. … 「液」云, 腹中虛痛, 脾經也, 非芍藥不除, 補津液停濕之劑. … 「衍義」云, … 俗云白補而赤瀉.

芍藥이 收澁하여 津液을 補益할 수 있다고 보았다. 利小便是 濕 혹은 津液을 모아서 小便이 저절로 통하게 하는 것이지, 직접 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白補赤瀉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나타났다.

23) 『本草綱目』에서 『大明』으로 인용.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495.

24) 唐慎微 著, 郭君双, 金秀梅, 趙益梅 校注. 證類本草 (臨床經典名著). 中國.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237.

25) 劉河間 著,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素問 病機氣宜保命集(金元四大家 醫學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176.

26) 張潔古 著, 金容辰 趙學俊 編譯, 懸壺吐譯 醫學啓源, 대전, 周珉 出版社. 2003. pp.8,38,228.

27) 李東垣 著,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蘭室秘藏(金元四大家 醫學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801.

28) 李東垣 著,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脾胃論(金元四大家 醫學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679

29) 王好古 著, 盛增秀 主編. 湯液本草(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4. pp.30-31.

11) 醫學入門 (A.D. 1575)<sup>30)</sup>

白芍 … 通肺燥, 滋腎陰, 補津停濕, 令小便自行, 非通利之藥也.

肺燥를 통하게 하고 腎陰을 적시는데, 진액을 보한 것이 전신으로 퍼지며 소변을 행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12) 本草綱目 (A.D. 1596)<sup>31)</sup>

芍藥 … 瀉肝, 安脾肺, … 理中氣, 治脾虛中滿, 心下痞, 脅下痛, 善噫, 肺急脹逆喘咳, 太陽魘目澀, 肝血不足, 陽維病苦寒熱, 帶脈病苦腹痛滿, 腰溶溶如坐水中(好古). 止下痢腹痛後重(時珍)… 時珍曰, 白芍藥益脾, 能於土中瀉木. 赤芍藥散邪, 能行血中之滯.

芍藥의 공통효능이 瀉肝, 安脾肺, 理中氣 등으로 제시 되어 있으며 脾虛中滿, 心下痞, 脅下痛, 善噫, 肺急脹逆喘咳의 安脾肺, 理中氣에 해당하는 주치가 추가 되었다. 肝血不足 증상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赤芍藥과 白芍藥의 차이를 白補赤瀉로 보았다.

13) 本草經疏 (A.D. 1623)<sup>32)</sup>

赤行血 白補血 白補而赤瀉 … 白者 … 瀉肝家火邪, 故其所主收而補. 制肝補脾, 陡健脾經, 脾主中焦, 以其正補脾經, 故能緩中. 土虛則水泛濫, 脾實則水氣自去, 故去水氣. … 酸寒能涼血補血, 故主胎產諸病, 土實則金肅而木氣自斂 故治風除熱, 益血, 故能補勞退熱除煩. 統後天元氣, 得補則旺, 故益氣. … 酸寒能瀉肝 肝平則脾不為賊邪所干 脾健則母能令子實 故安脾肺. 胃氣屬土 土虛則緩而散 木化作酸 故收胃氣 脾虛則中氣下陷而成瀉利 東垣以中焦用白芍藥 則脾中升陽 又使肝膽之邪不敢犯 則瀉利自止矣. 脾主皮

毛腠理 脾主肌肉 而為肺之母 母能令子實 故固腠理. … 脾統血 脾和則血脈自和. … 肝家無火則肝血自足. 陽維病苦寒熱, 及帶脈病苦腹痛滿, 腰溶溶如坐水中, 皆血虛陰不足之候也. 肝脾和, 陰血旺, 則前證自瘳矣. 木芍藥色赤, 赤者主破散, 主通利, … 行血涼血則癰腫自消.

白芍藥은 主收而補로 脾를 補하고 肝을 瀉하는 것으로써 去水氣, 益血, 益氣, 補肝血와 그 밖에 주치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으며, 赤芍藥은 主破散 主通利 및 涼血, 涼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去水氣는 '脾實則水氣自去'라고 설명되어 脾를 보했을 때 오는 이차적인 효능이다. 水氣는 부족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脾統血과 土와 金의 상생 관계에서 治風除熱한다는 설명이 주목할 만하다.

14) 本草正 (A.D. 1624)<sup>33)</sup>

白者味甘, 補性多. 赤者味苦, 瀉性多 … (芍藥) 補血熱之虛, 瀉肝火之實 … 止血虛之腹痛, 斂血虛之發熱. 白者安胎熱不寧, 赤者能通經破血. 此物乃補藥中之稍寒者, 非若極苦大寒之比.

芍藥의 공통효능이 있으며, 白芍藥은 補하는 성질이 많고 赤芍藥은 瀉하는 성질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芍藥은 補藥 중 약간 차가운 것이지 아주 쓰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15) 本草新編 (A.D. 1687)<sup>34)</sup>

芍藥 … 能瀉能散, 能補能收, 赤白相, 無分彼此. 其功全在平肝, 肝平則不克脾胃, 而臟腑各安, 大小便自利, 火熱自散, 郁氣自除, 癰腫自消, 堅積自化, 瀉痢自去, 痢痛自安矣. … 大滋其肝中之血, 始足以慰其心而快其意, 而後虛者不虛, 郁者不郁也. … 用之補則補, 用之瀉則瀉, 用之散則散, 用之收則收, 要在

30) 李滄 著,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註編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232.

31)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p494-495.

32)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p.181-183.

33) 張景岳 著, 校勘 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2004. pp.1021-1022.

34) 陳士鐸 著, 柳長華, 徐春波 校注, 本草新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p.100-104.

人善用之.

芍藥이 補瀉를 함께 할 수 있어 赤芍藥과 白芍藥의 효능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芍藥의 효능이 전적으로 평간에 있다고 하였다. 補로 인하여 사기가 저절로 물러간다고 하였다. 補瀉는 쓰기 나름이라고 하였다.

16) 本草備要 (A.D. 1694)<sup>35)</sup>

白芍藥 補血, 瀉肝 … 白芍不惟治血虛, 大能行氣. … 白芍能行營氣, 白芍能理中瀉肝 … 赤芍藥主治略同, 尤能瀉肝火. … 白補而收, 赤散而瀉.

白芍藥이 또한 血虛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크게 行氣, 行營氣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赤芍藥은 주치가 대략 동일하며 더욱 肝火를 瀉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였다.

17) 長沙藥解 (A.D. 1753)<sup>36)</sup>

芍藥清風木之燥也 … 芍藥雙清木火, 以復津液也 … 然能洩肝膽風火, 亦伐脾胃之陽. … 凡風木之病, 而脾胃虛弱, 宜稍減之, … 傷寒別經及雜證下利, 皆肝脾陽陷, 不宜芍藥. … 然瀉而不補, 亦非虛家培養之劑也.

木火를 清하여 津液을 돌아오게 하였다. 脾胃의 陽까지 치므로 상한의 다른 經 및 잡증의 하리에서 모두 芍藥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사하고 보하지 않으므로 虛家の 배양하는 약이 아니라고 하였다.

18) 本草求真 (A.D.1769)<sup>37)</sup>

白芍, … 肺脹噎逆 癰腫疔瘻 鼻衄目澁(用此益陰退火而自治)… 赤芍, … 與白芍主補無瀉, 大相遠耳, 『大明』指爲赤白皆補 其說不切, 『日華子』指爲赤能補氣 白能治血 其說尤不切耳 不可不知.

白芍藥은 肺脹噎逆, 癰腫疔瘻, 鼻衄目澁을 치료하는 것은 陰을 더하여 火를 물러나게 하여 저절로 치료된다. 白芍藥은 補를 주로 하며 瀉가 없고 赤芍藥은 이와 반대되며, 赤芍藥 白芍藥 모두 보한다는 말은 틀리다고 하였다.

19) 本草述鉤元 (A.D. 1833)<sup>38)</sup>

白芍 … 瀉脾補肝. 故能陡健脾經. 收脾經之陰氣. 陰氣既收則火退. 故又瀉脾火. (白芍何以專瀉脾火. 蓋收陰即所以召陽. 陽歸陰中. 而邪火自散. 脾屬太陰. 收陰必先至脾. 故瀉邪火亦先於脾也) … 白芍瀉肝邪, 更專補中焦脾氣. 是以取效.) … 赤芍, … 要皆肝以爲體. 脾以爲用. … 是皆不外脾也.

白芍藥이 瀉肝補脾의 일반적인 주장과 다르게 瀉脾補肝이라는 표현이 잠깐 보이는데, 脾經의 陰氣를 수렴해서 脾火를 瀉한다고 했다. 뒤에서는 다시 “白芍瀉肝邪, 更專補中焦脾氣”라고 언급하였다. 적백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赤芍藥은 血分으로 들어가 行하여 氣의 用이 되고, 白芍藥은 氣分으로 들어가 收하여 血의 用이 된다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肝이 體, 脾가 用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 本草思辨錄 (A.D. 1904)<sup>39)</sup>

能入脾破血中之氣結, 又能斂外散之表氣以返于裏. … 單用詎能即補. 潔古謂入脾經補中焦. 東垣謂色在西方故補. 皆足貽誤後人. 洵溪又但以爲養肝之聖藥. 其亦味之至矣.

35) 汪昂 著, 張一昉 点校. 本草備要.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7. pp.48-49.  
 36) 黃元禦 著. 長沙藥解(黃元禦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87.  
 37) 黃宮綉 著, 趙貴銘 点校. 本草求真.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p.70-71,264.

38) 楊時泰 著.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9. pp.166-167.  
 39) 周岩 著, 陸拯 点校. 本草思辨錄.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13. pp.46-48.

脾의 血中氣結을 깨뜨리고, 외부의 흩어진 表氣를裏로 모아들인다고 하였으며, 芍藥이 단독으로 보하는 것은 아니며 補劑와 배합해야 補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역대 각종 문헌을 통해 芍藥의 補瀉를 살펴본 결과, 『神農本草經』에서는 赤芍藥과 白芍藥을 나누지 않았으며 補보다는 邪氣를 몰아내는 효능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補하는 효능은 후에 조금씩 추가되어 金元四大家의 本草書에 이르러 補瀉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芍藥은 補瀉의 효능에 대해서 역대 의가들의 의견차가 다소 있었다. 芍藥의 효능을 『本草新編』에서는 瀉는 補로 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長沙藥解』는 반대로 補는 瀉의 결과라고 보았다. 『本草思辨錄』에서도 芍藥이 補하지 않으며 補하는 것은 다른 약과 함께 배합해야 오는 효능이라고 하였다. 또한 赤芍藥과 白芍藥의 효능을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있었다. 赤芍藥과 白芍藥의 효능 차이를 명확히 구분한 문헌과 赤芍藥과 白芍藥의 효능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문헌이 있었다. 또한 赤芍藥과 白芍藥의 효능 차이가 있으면서도 芍藥의 공통 효능이 있는 문헌이 있었다. 『本草經疏』, 『本草從新』은 적백의 주치를 명확하게 구분했으며, 『本草求真』은 白芍藥은 補를 주로 하며 瀉가 없고 赤芍藥은 이와 반대되며, 赤芍藥과 白芍藥 모두 보한다는 말은 틀리다고 하였다. 『本草新編』은 赤芍藥과 白芍藥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芍藥의 효능은 장부가 안정되면 각종 사기가 저절로 물러간다고 하고 있다. 『本草述鉤元』은 赤芍藥과 白芍藥의 효능을 구분은 하였으나 공통적으로 肝體脾用이며, 작용이 脾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本草崇原』은 赤芍藥과 白芍藥은 한 종류라고 하였다. 『本草備要』과 『本草正』은 赤芍藥과 白芍藥의 공통 효능 주치가 있으나, 白芍藥은 補에 赤芍藥은 瀉에 더욱 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제가들의 芍藥 효능에 대한 의견차를 이해하기 위해 芍藥의 효능을 분류하면, 補法과 瀉法 이외에도 補瀉로 분류하기 힘든 通法과 기타로

분류할 수 있었다. 補法은 益氣, 強五臟, 補腎氣, 益好血, 益血, 補肝血, 益津液, 補中焦, 補脾胃 등이 있었으며, 瀉法은 逐賊血, 散惡血, 除血痺, 破堅積, 治肺邪氣, 瀉肝火, 泄邪熱, 瀉火, 濕, 除腹痛, 土中瀉木, 涼血 등이 있었고, 補瀉가 혼합된 것으로 治風補勞, 瀉肝補脾胃, 益陰退火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補瀉로 분류하기 애매한 通宣臟腑擁氣, 利小便, 通順血脈, 利膀胱大小腸, 通月水, 行血中之滯, 行血, 緩中, 調血, 和血脈, 理中氣, 脾統血, 脾和, 肝和 등의 효능이 있었다.

정리하면 芍藥이 補하는 대상은 주로 氣, 血, 津液, 肝, 脾胃이며, 瀉하는 대상은 주로 惡血, 熱, 火, 痛이었는데, 상반되는 대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氣에 대해서 益氣라고 했으나 瀉熱하는 효능이 있었고, 血에 대해서는 散惡血하나 補血하는 효능이 있었다. 散惡血과 補血은 血이란 같은 대상에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반된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益氣와 瀉熱이 상반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氣는 陽에 속하므로 益氣의 결과는 보통 溫하게 되며, 氣의 대표적인 작용을 한의생리학 교과서에서 溫煦作用으로 설명하고 있다<sup>40)</sup>. 따라서 益氣는 溫하게 하며, 瀉熱은 熱을 식혀 冷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반된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芍藥의 상반된 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상반된 효능은 散惡血과 補血, 益氣와 瀉熱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 2. 상반된 효능에 대한 분석

補血과 散惡血, 益氣와 瀉熱의 상반된 효능의 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에서 해당 효능을 일으키는 작용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1) 補血과 散惡血

#### ① 補血

『本草綱目』“成無己曰, 芍藥之酸, 斂津液而益營血.”<sup>41)</sup>

40) 全國韓醫科大學 生理學 敎授 編著. 改訂版 東醫生理學. 科州. 集文堂. 2008. pp.138-139.

41)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495

津液을 수렴하여 榮血을 더한다고 하였다.

『本草匯』“又入肝脾血分. 收陰氣而補血.”<sup>42)</sup>  
肝脾의 血分으로 들어가 陰氣를 수렴하여 補血한다고 하였다.

『本草經疏』“酸寒能瀉肝 … 肝家無火, 則肝血自足 … 肝脾和 陰血旺.”<sup>43)</sup>

酸寒으로 肝에 火가 없어지면 肝血이 저절로 충분해지고 肝脾가 조화로우면 陰血이 왕성해진다고 하였다.

주로 음기나 진액을 수렴하여 補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肝火를 없애어 肝脾를 화해시켜 저절로 왕성해진다는 내용도 있었다.

## ② 散惡血

散惡血은 破瘀血, 破血, 逐賊血 등도 포함하여 작용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았다.

『本草經疏』“木芍藥色赤 … 入肝行血, 故散惡血 逐賊血.”<sup>44)</sup>

血을 행하게 하여 어혈을 흘린다고 하였다.

『本草正』“赤者能通經破血”<sup>45)</sup>

經絡을 통하게 하여 血을 부순다고 하였다.

문헌에서 散惡血이 가능한 구체적인 작용의 설명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血을 행하게하고 經絡을

통하게하여 瘀血을 없앤다는 설명이 있었다.

補血과 散惡血의 연결고리를 芍藥에 대한 본초문헌에서는 赤芍藥과 白芍藥의 구분으로 인해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대표적인 補血 처방인 四物湯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當歸, 川芎을 참고한 결과 補血과 散瘀血 효능이 함께 언급되고 있었다.

『日華子本草』“當歸, 治一切風, 一切血, 補一切勞, 破惡血, 養新血及主癥瘕 … 芍藥, 畏黃連, 治一切風, 一切氣, 一切勞損, 一切血, 補五勞, 壯筋骨, 調衆脈, 破癥結宿血, 養新血, 長肉, 鼻洪, 吐血及瀉血, 痔瘻, 腦癰, 發背, 癩癧, 癭贅, 瘡疥, 及排膿, 消瘀血.”<sup>46)</sup>

當歸는 養新血, 破惡血할 수 있으며 川芎은 養新血, 消瘀血, 破癥結宿血할 수 있다고 하였다.

『本草綱目』“(補虛 草部) 當歸 芍藥 地黃 丹參, 並養新血, 破宿血, 止痛.”<sup>47)</sup>

當歸, 川芎, 芍藥이 공통적으로 養新血, 破宿血할 수 있다고 하였다.

當歸, 川芎, 芍藥에서 공통적으로 補血과 散瘀血에 관련된 효능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 약제에서 이 상반된 효능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本草正』“當歸, 其味甘而重, 故專能補血, 其氣輕而辛, 故又能行血, 補中有動, 行中有補, 誠血中之氣藥, 亦血中之聖藥也. … 大約佐之, 以補則補, 故能養營養血, 補氣生精, 安五臟, 強形體, 益神志, 凡有形虛損之病, 無所不宜 … 川芎, 其性善散, 又走肝經, 氣中之血藥也. … 芍藥, 歸俱屬血藥, 而芍之散動尤甚於歸, 故能散風寒, 治頭痛, 破瘀蓄, 通血脈, 解結氣, 逐疼痛, 排膿消腫, 逐血通經.”<sup>48)</sup>

42) 郭佩蘭 著, 王小崗 外 3人 校注. 本草匯.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2013. p.288.

43)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p.182.

44)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183.

45) 張景岳 著. 校勘 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2004. p.1022.

46) 華子 著. 尙志鈞 輯校. 日華子本草 蜀本草 合刊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51, 57.

47)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156.

48) 張景岳 著. 校勘 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2004. p.1021.

當歸를 진실로 血中之氣라고 하였으며, 行血할 수 있고 행하는 중에 보가 있어 능히 補血할 수 있다고 하였다. 川芎은 當歸보다 通散의 작용이 더욱 우수하여 氣中之血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當歸와 마찬가지로 역시 血藥에 속하는 것임을 밝혔다.

『本草述鉤元』“芎藭 … 味辛氣溫, 但能升散, 而不能下守. 血貴寧靜而不貴躁動, 四物湯用之以暢血中之元氣. 使血自生, 非謂其能養血也.(丹溪)”<sup>49)</sup>

川芎이 血中之元氣를 통하게 하는 것으로써 혈이 생기는 것이지 능히 혈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本經疏證』“當歸, 故血所不足處, 即有血之生氣以裕之潤之, 血所乖阻處, 即有血之化氣以和之行之. 既能養血, 又能和血. 行血, 隨所引而莫不各歸其所當歸, 斯言也, 實得古聖命名之微義, 於是物之體性備矣, 而其用亦不外乎是.”<sup>50)</sup>

當歸는 養血, 和血, 行血 한다고 하였다. 혈이 부족한 곳에서 혈에서 기를 생하여 적시고, 혈이 어그러지고 막힌 곳에서는 혈에서 기를 변화시켜 조화하고 행하게 한다.

종합하면 血中氣를 통해서 補血과 散瘀血이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血中氣에 작용에서 當歸, 川芎, 芍藥의 차이를 문헌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本草綱目』“時珍曰, 芎藭. 血中氣藥也. 肝苦急以辛補之. 故血虛者宜之. 辛以散之. 故氣鬱者宜之.”<sup>51)</sup>

川芎을 血中氣藥으로 소개하면서 血虛와 氣鬱에

마땅하다고 하였다.

『本草綱目』“(血氣 草部) 當歸 氣中之血. 芎藭 血中之氣.”<sup>52)</sup>

血氣를 분류함에 있어 『本草正』와 반대로 當歸를 氣中之血으로 川芎을 血中之氣으로 설명했다.

『本草正』에서 當歸를 血中之氣藥, 川芎을 氣中之血藥한 것은 범위를 두고 한 표현으로, 當歸는 血에 주로 작용하는 약 중에서는 氣藥에 가까우며 川芎은 氣에 주로 작용하는 약 중 血藥에 가깝다는 뜻이다. 반면 『本草綱目』에서 當歸를 氣中之血, 芎藭을 血中之氣라고 한 것은 무엇을 중시하였는지 기준에 대한 표현으로, 當歸는 氣의 기준에서 血에 가까우며 川芎은 血의 기준에서 氣에 가깝다는 뜻이다. 결국 둘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本草綱目』“(血滯 草部) 當歸 芎藭 並主一切風, 一切氣, 一切虛. 破惡血, 養新血. 蜜丸服, 治風痰, 行氣解鬱. … 芍藥 治風, 除血痹, 瀉肝, 安脾肺. 風毒在骨髓痛, 同虎骨浸酒飲.”<sup>53)</sup>

血滯를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 當歸와 川芎은 일체의 風, 氣, 虛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며 養新血, 破惡血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어 있으나, 芍藥은 安脾肺, 除血痹로 약하게 설명되어 있다.

『本草綱目』“(活血流氣) 當歸 一切氣. 一切勞. 破惡血. 養新血. 補諸不足. 頭止血. 身養血. 尾破血. 婦女百病. … 芎藭 一切氣. 一切血. 破宿血. 養新血. 搜肝氣. 補肝血. 潤肝燥. 女人血閉無子. 血中氣藥也. … 芍藥 女子寒血閉脹. 小腹痛. 諸老血留結. 月候不調.”<sup>54)</sup>

活血流氣의 작용에 있어서도 역시 當歸와 川芎은 일체의 氣, 血 혹은 勞를 치료하며 비슷하게 서술

49) 楊時泰 著.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9. pp.160.

50) 鄒澍 著. 김선호 주석. 本經疏證 上. 대전. 주민출판사. 2012. p.566.

51)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488.

52)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87.

53)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p.75-76.

54)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p.214-215.

되어 있으며 養新血, 補肝血, 身養血과 破惡血, 破宿血 등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芍藥은 이런 효능에 대한 설명이 보이지 않고, 주치하는 瘀血症의 정도가 老血留結, 寒血閉脈, 小腹痛 등으로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當歸와 川芎이 함께 거론된 곳에서 芍藥의 血中之氣의 효능에 대한 설명은 當歸와 川芎의 설명에 비해 부족하였다.

직접적으로 血에 대한 芍藥의 효능을 血中氣로써 설명한 본초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本草崇原』“芍藥能調血中之氣 … 益氣者, 益血中之氣也. 益氣則血亦行矣.”<sup>55)</sup>

血中之氣를 조절하며[調], 血中之氣를 더한 결과로 血이 흐르게 된다고 하였다.

『本經疏證』“故能破陰凝布陽和 … 則能治血分之陰氣結, 不能治霧露水穀之陰氣結.”<sup>56)</sup>

血分の 陰氣가 結한 것은 치료하며 霧露水穀의 陰氣가 結한 것은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本草思辨錄』“故能入脾破血中之氣結…不能破血中之血結.”<sup>57)</sup>

血中の 氣結을 부수지만, 능히 血中の 血結은 부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芍藥이 血中氣結를 다스리지만 血中之血結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에서 破血의 효능이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益血中之氣 또한

血中之氣를 직접 補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益血中之氣’ 다음에 ‘益氣則血亦行矣’라고 하여 血行의 의미로서 血中之氣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芍藥能調血中之氣’라고 하여 補한다기보다 調한다고 하였으므로, 芍藥이 血中之氣를 직접 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當歸, 川芎, 芍藥의 血中氣의 공통점은 補血을 할 수 있으며 또한 血을 行하게 할 수 있어 血의 鬱滯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이점은 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川芎의 작용은 보다 氣에 가까워 울체를 푸는 힘이 강하며, 當歸의 작용은 보다 血에 가까워 氣化를 조화롭게 하여 血에 대한 작용이 크다. 반면 芍藥의 작용은 當歸와 川芎에 비해 補血과 破血하는 효능이 강하지 않다. 芍藥의 血中之氣에 작용하는 효능에 대한 문헌들의 설명을 참고하였을 때, 生血하는 것은 當歸보다 약하며 破血하는 것은 川芎보다 약하고, 단지 血中氣를 조절하여 氣結을 깨고 生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2) 益氣와 瀉熱

먼저 益氣는 『神農本草經』에 처음 등장하고 『日華子本草』에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문헌에서 益氣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益氣에 대한 작용 설명

#### ① 補脾氣 혹은 補腎氣의 益氣

『本草經疏』“統後天元氣, 得補則旺, 故益氣.”<sup>58)</sup>

統後天元氣는 脾氣를 가리킨다.

脾와 관련된 芍藥의 작용을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本草經疏』“脾統血 脾和則血脈自和.”<sup>59)</sup>

脾統血 작용으로 脾를 조화시켜 血脈이 저절로

55) 張志聰 著, 劉小平 点校. 本草崇原.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8. p.73.

56) 鄒澍 著, 김선호 주석. 本經疏證 下. 대전. 주민출판사. 2012. p.37.

57) 周岩 著, 陸拯 点校. 本草思辨錄.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13. p.47.

58)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182.

59)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182.

조화된다고 하였다.

『湯液本草』“『象』云, 補中焦之藥.”<sup>60)</sup>

中焦를 보하는 약이라고 하였다.

『本草綱目』“(好古)理中氣.”<sup>61)</sup>

中氣를 다스린다고 하였다.

『本草述鉤元』“理中氣, 斂逆氣, 和血脈, 固腠理, 治脾虛中滿, 心下痞, 脅下痛, 善噫, 肺急脹逆喘咳, 治風退熱除煩, 止下痢腹痛後重. … 上合膈中空氣以注于肺, 而後心肺胃布其天氣以下濟焉. 所以脾胃爲中氣也. 其能理中氣, 又云安肺者, 以天氣爲病.”<sup>62)</sup>

理中氣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脾를 보하는 것으로 肺까지 안정되어 逆氣를 收斂할 수 있다고 하였다.

추가적으로 芍藥이 補腎氣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藥性論』“芍藥, 臣. 能治肺邪氣, 腹中痛, 血氣積聚, 通宣臟腑擁氣, 治邪痛敗血, 主時疾骨熱, 強五臟, 補腎氣, 治心腹堅脹, 婦人血閉不通, 消瘀血, 能蝕膿.”<sup>63)</sup>

補腎氣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補腎氣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직접 설명되지 않으므로, ‘通宣臟腑擁氣’, ‘主時疾骨熱’와 관련지어 이해하여야 한다.

『本草品匯精要』“強五臟, 益腎氣.”<sup>64)</sup>

60) 王好古 著, 盛增秀 主編. 湯液本草(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30.

61)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495

62) 楊時泰 著.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9. pp.166-168.

63) 『證類本草』에서 인용. 唐慎微 著, 郭君双, 金秀梅, 趙益梅 校注. 證類本草(臨床經典名著). 北京, 中國中醫藥科技出版社. 2011. p. 237.

64) 劉文泰 著, 曹暉 校注. 本草品匯精要. 北京, 花夏出版社.

五臟을 강하게 하고 益腎氣한다고 하였다.

補腎氣라는 설명이 최초로 『藥性論』에서 보이며, 이를 『圖經衍義本草』, 『本草綱目』, 『本草品匯精要』등에서 인용하였다. 補腎氣의 의미는 通宣臟腑擁氣과 主時疾骨熱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먼저 芍藥이 주치하는 骨熱은 時疾骨熱이며, 時疾은 外感을 의미한다. 따라서 芍藥이 骨熱을 치료하는 것은 陰虛骨熱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腎의 精氣를 직접 보하는 것이 아니며 外感의 상황에서 臟腑의 氣가 응체된 것을 통하게 하여 骨熱을 푸는 것이다.

이렇게 臟腑의 氣가 통하게 되는 것이 腎을 도울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素問·藏氣法時論』에서 “腎은 마른 것을 싫어하니 급히 辛味를 먹어 적셔주어 腠理를 열리게 하고 津液을 이르게 하여 氣를 통하게 해야 한다<sup>65)</sup>.”고 하였으므로, 芍藥이 비록 辛味는 아니지만 氣를 통하게 하고 津液을 이르게 하여 腎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益血中之氣의 益氣

『本草崇原』“益氣者, 益血中之氣也. 益氣則血亦行矣.”<sup>66)</sup>

益血中之氣의 결과로 血行한다고 하였다.

### ③ 斂肝氣를 통한 益氣

『神農本草經百種錄』“益氣, 肝氣斂則受益. … 故能收拾肝氣, 使歸根反本, 不至以有餘肆暴, 犯肺傷脾, 乃養肝之聖藥也.”<sup>67)</sup>

직접적으로 보하는 것이 아니라 肝氣를 수렴해서 오는 이차적인 효과를 말한 것이다. 肝氣는 원래 하이나 성질에 따라 陰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렴

2004. p.162.

65) 朴贊國 譯註.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445.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開腠理, 致津液, 通氣也.”

66) 張志聰 著, 劉小平 點校. 本草崇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73.

67) 徐大椿 著. 神農本草經百種錄(徐大椿醫書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98.

되는 肝氣의 속성은 根本까지 돌아갈 수 있으며 脾肺를 상하게 하는 것을 막으므로 陰의 속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肝의 입장에서 根本은 腎도 의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④ 다른 약과 배합을 통한 益氣  
 『本草蒙筌』“與參耆同用益氣.”<sup>68)</sup>

인삼, 황기와 함께 사용하여 益氣한다고 하였다.

『本草新編』“與參, 并用, 則可以益氣.”<sup>69)</sup>

인삼과 함께 사용하면 益氣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益氣에 대한 작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益氣는 補脾氣, 補腎氣, 益血中之氣, 肝氣斂로 이루어졌었다. 여기서 益氣가 작용하는 부위는 肝, 脾, 腎, 血로 陰分임을 알 수 있다. 陰分의 氣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收陰氣, 斂逆氣, 斂肝氣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氣가 수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理中氣, 血行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益氣의 작용 및 작용을 정리하면, 수렴된 陰分의 氣가 疏通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瀉熱하는 작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瀉熱에 대한 작용 설명

① 收陰氣를 통한 瀉熱  
 『本草述鉤元』“收陰氣而除虛熱<sup>70)</sup>.”

收陰氣하여 虛熱을 끈다.

『本草綱目』“成無己曰, … 收陰氣而泄邪熱.”<sup>71)</sup>

收陰氣하여 邪熱를 빼낸다.

『本草匯』“收陰氣而瀉邪熱.”<sup>72)</sup>

收陰氣하여 邪熱을 瀉한다.

收陰氣하여 瀉熱한다는 것은 공통적이었으나, 瀉하는 熱이 虛熱, 邪熱로 다소 차이가 있다.

② 補血을 통한 瀉熱

『本草正』“補血熱之虛, 斂血虛之發熱.”<sup>73)</sup>

血熱로 인한 虛를 補하고, 血虛로 인한 發熱을 수렴한다고 하였다.

『珍珠囊藥性賦』“赤芍藥破血而療腹疼, 煩熱亦解, 白芍藥補虛而生新血, 退熱尤良.”<sup>74)</sup>

『珍珠囊補遺藥性賦』에서는 熱을 없애는 효능이 白芍藥이 生新血할 수 있어 더 낫다고 하였다. 補血로 인한 瀉熱을 더 효과가 크다고 간주한 것이다.

『本草經疏』“益血, 故能補勞退熱除煩.”<sup>75)</sup>

益血하여 虛勞를 보하고 熱을 물리치고, 煩을 없앤다고 하였다.

③ 行血을 통한 瀉熱

『本草經疏』“血瘀則發寒熱 行血則寒熱自止.”<sup>76)</sup>

68) 陳嘉謨 著, 陸拯 趙法新 校点. 本草蒙筌.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13. p.39.

69) 陳士鐸 著, 柳長華, 徐春波 校注. 本草新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p.101.

70) 楊時泰 著.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9. p.167.

71)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495

72) 郭佩蘭 著, 王小崗 外 3人 校注. 本草匯.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2013. p.288.

73) 張景岳 著. 校勘 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2004. p.1022.

74) 李東垣 著,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珍珠囊藥性賦(金元四大家 醫學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1047.

75)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183.

76)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183.

血瘀로 인한 寒熱이 발하는 것은 血이 行하면 멈춘다고 하였다.

『本草汇』“血瘀則氣血凝滯而發寒熱，行血則寒熱自止.”<sup>77)</sup>

血瘀와 氣血의 凝滯가 寒熱을 만드는데 行血시켜 寒熱을 몰아낸다.

④ 寒性の 瀉熱

『本草經疏』“酸寒能涼血補血.”<sup>78)</sup>

血을 식히고 補血한다고 하였다.

『本草從新』“夫芍藥正取其寒，以涼肝之熱.”<sup>79)</sup>

肝熱을 식힌다고 하였다.

⑤ ‘土實則金肅’을 통한 瀉熱

『本草經疏』“土實則金肅而木氣自斂 故治風除熱.”<sup>80)</sup>

土가 실해지면 母能令子實에 의해 金 또한 강해져서 木氣가 저절로 수렴되므로 除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本草汇』“又治風除熱益血者，土實則金肅，而木氣自斂，其效當如是也.”<sup>81)</sup>

위 문장과 같은 내용이나 “土實則金肅，而木氣自斂.”의 효과로 益血이 추가 되었다.

土實은 益氣의 補脾氣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⑥ 기타

『本草從新』“肝平則不克脾胃，而臟腑各安，大小便自利，火熱自散.”<sup>82)</sup>

平肝하여 火熱이 저절로 흩어진다고 하였다.

『本草蒙筌』“赤利小便去熱.”<sup>83)</sup>

利小便으로 去熱한다고 하였다.

『醫學入門』“利水下氣祛煩熱，以能收斂濕熱邪毒 發汗退熱.”<sup>84)</sup>

濕熱邪毒을 직접 수렴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위의 瀉熱에 대한 작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瀉熱은 收陰氣, 補血, 行血, 涼血, 土實則金肅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補血, 行血, 涼血에서 瀉熱이 되는 부위는 血分임을 알 수 있다. 앞의 散瘀血과 補血 부분에서 芍藥은 血中氣를 調한다는 것을 밝혔다. 血中氣의 기능은 行血, 統血, 溫經 하는데, 이 기능들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 熱이 생길 수 있다. 이 熱을 瀉하는 것은 血中氣를 調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土實則金肅은 補脾氣와 연관이 깊었으며 脾는 至陰에 해당하므로, 補脾氣는 일종의 陰分의 氣를 補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 收陰氣는 氣를 거둬들여 陰分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血分은 陰分에 포함되므로 결국 血分의 氣는 일종의 陰分의 氣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收陰氣는 血中之氣와 연관이 있다. 이상으로 瀉熱의 작용을 정리하면, 益氣와 마찬가지로, 수렴된 陰分의 氣가 疏通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77) 郭佩蘭 著, 王小崗 外 3人 校注. 本草汇.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2013. p.289.

78)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p.182-183.

79) 吳儀洛 著. 本草從新. 서울. 행림출판. 1989. p.30.

80)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182.

81) 郭佩蘭 著, 王小崗 外 3人 校注. 本草汇.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2013. p.288.

82) 吳儀洛 著. 本草從新. 서울. 행림출판. 1989. p.30.

83) 陳嘉謨 著, 陸拯 趙法新 校点. 本草蒙筌.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13. p.39.

84) 李梴 著,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註編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 232.

### 3. 상반된 효능에 대한 추가 논의

앞서 益氣와 瀉熱의 두 작용은 모두 ‘수렴된 陰分의 氣가 疏通’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수렴과 소통의 작용이 있었다. 수렴의 작용은 모아들이는 것이며, 소통의 작용은 퍼뜨리고 흩어버리는 것에 가까우므로 수렴과 소통 또한 작용의 방향성이 서로 상반된다. 따라서 芍藥이 收하는 작용과 行, 通의 개념을 포함한 散하는 작용에 대한 문헌의 설명 또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1) 收와 散의 대상

먼저 收의 대상들은 아래와 같다.

##### ① 汗 및 肺氣

『醫學入門』“斂汗退熱.”<sup>85)</sup>

『本草匯』“收肺氣而斂汗.”<sup>86)</sup>

『本草易讀』“固腠理而斂汗, 和血脈而收氣.”<sup>87)</sup>

『本草從新』“除煩斂汗, 退熱安胎.”<sup>88)</sup>

『本草匯』“肺燥氣熱者, 以酸收斂其逆氣.”<sup>89)</sup>

汗 및 肺氣를 수렴한다고 하였다.

##### ② 陰氣 및 津液

『湯液本草』“脾經之藥, 收陰氣, 能除腹痛, 酸以收之, 扶陽而收陰氣, 泄邪氣. … 入手足太陰經, 大抵酸澁者爲上, 爲收斂停濕之劑.”<sup>90)</sup>

『醫學入門』“蓋當肝火陰邪犯脾, 酸能收泄陰氣而止痛健脾.”<sup>91)</sup>

『本草綱目』“成無己曰, … 芍藥之酸, 斂津液而益營血, 收陰氣而泄邪熱.”<sup>92)</sup>

『本草述鉤元』“收脾經之陰氣. 陰氣既收則火退, 故又瀉脾火.”<sup>93)</sup>

陰氣와 津液을 수렴한다고 하였다.

##### ③ 下利 및 胃氣

『本草綱目』“元素曰 … 收胃氣 … 止瀉痢 … 固腠理. 水瀉下痢刺痛後重必用之者, 以能收斂濕熱邪毒, 而脾之正氣自舒.”<sup>94)</sup>

『醫學入門』“水瀉下痢刺痛後重必用之者, 以能收斂濕熱邪毒.”<sup>95)</sup>

『本草思辨錄』“夫芍藥者, 能斂外散之氣以返于裏者也. 風濕脈浮身重汗出惡風, 氣之外散爲何如, 故其證有兼喘者, 有兼氣上衝者. 和胃非他, 斂胃氣使下降耳, 豈芍藥而有和胃之專長. 又肺與腸胃皆一氣直下, 芍藥能斂氣入裏, 卽能下歸腸胃.”<sup>96)</sup>

胃氣를 수렴한다는 것의 의미는 瀉痢가 멈춘다는 뜻이다. 『醫學入門』에서는 특이하게 濕熱邪毒을 收斂한다고 하였다. 이는 황련이나 황백의 작용과 명백히 다르며, 水瀉下痢刺痛을 고치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다른 本草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예외적인 표현이다. 다만 『本草思辨錄』<sup>97)</sup>과 『本經疏證』<sup>98)</sup>은 멈추게 할 수 있는 下利는 結滯로 인한 것으로 보았다.

##### ④ 逆氣

92)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495.

93) 楊時泰 著.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9. pp.167.

94)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495.

95) 李時珍 著.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註編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 232.

96) 周岩 著, 陸拯 點校. 本草思辨錄.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13. p.48.

97) 周岩 著, 陸拯 點校. 本草思辨錄.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13. p.47. “下利乃陰氣下溜, 土德有愆, 豈堪更從而破之, 故下利斷非所宜. 若滯下之利, 則正宜決其壅滯, 芍藥又爲要藥.”

98) 鄒澍 著, 김선호 주석. 本經疏證 下. 대전. 주민출판사. 2012. p.34. “唯心下續膿滿, 則開結行水在所必須矣. 真武湯何獨不然, 既利而水氣行, 腹痛止, 則不必用芍藥, 若痢而腹痛不止, 則芍藥尚在必用” \*『本經疏證』에서는 腹痛을 血分之陰氣結로 보았다.

85) 李梴 著.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註編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232.

86) 郭佩蘭 著, 王小崗 外 3人 校注. 本草匯.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2013. p.287.

87) 汪認庵 著. 本草易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156.

88) 吳儀洛 著. 本草從新. 서울. 행림출판. 1989. p.30.

89) 郭佩蘭 著, 王小崗 外 3人 校注. 本草匯.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2013. p.288.

90) 王好古 著, 盛增秀 主編. 湯液本草(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p.30-31.

91) 李梴 著.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註編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 232.

『本草備要』“和血脈，收陰氣，斂逆氣。”<sup>99)</sup>

『本草述鉤元』“理中氣，斂逆氣，和血脈，固腠理，治脾虛中滿，心下痞，脅下痛，善噫，肺急脹逆喘咳。”<sup>100)</sup>

『本草經疏』“酸斂入陰，故收陰氣，斂逆氣，理中氣。”<sup>101)</sup>

逆氣를 수렴하는데, 逆氣는 心下痞, 脅下痛, 善噫, 肺急脹逆喘咳 등의 上衝하는 증상이다. 결과적으로 理中氣하게 된다.

⑤ 肝之陰氣 및 斂肝之液

『醫學入門』“血虛腹痛非此不除，以其酸能收斂肝之陰氣，而補中焦脾胃故也。”<sup>102)</sup>

『神農本草經百種錄』“故能收拾肝氣，使歸根反本。”<sup>103)</sup>

『本草求真』“白芍號爲斂肝之液，收肝之氣，而令氣不妄行也，何一不由肝氣之過盛，而致陰液之不斂耳。”<sup>104)</sup>

肝之陰氣 및 斂肝之液를 수렴한다. 『神農本草經百種錄』에서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肝氣는 陰氣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⑥ 木氣

『本草經疏』“土實則金肅而木氣自斂故治風除熱。”<sup>105)</sup>

『本草從新』“脅痛(脅者肝膽二經來往之道，其火上沖則胃脘痛，橫行則兩脅痛，白芍能斂氣瀉肝火.)”<sup>106)</sup>

木氣는 風火의 邪氣가 될 수 있는 陽氣이다.

⑦ 生發之氣의 伐

『本草蒙筌』“因其酸寒，恐伐生發之性故也。”<sup>107)</sup>

『醫學入門』“惟產後氣血大虛，東方生發眞氣亦微，初產又無邪火，誤用伐傷生氣，必變他症。”<sup>108)</sup>

『本草綱目』“產後不可用者，以其酸寒伐生發之氣也。”<sup>109)</sup>

生發之氣를 친다고 하였다. 芍藥이 강한 寒性이 아닌데 生發之氣를 치는 이유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產後나 氣血이 크게 虛할 경우 사용하지 말라는 것에서, 生發之氣는 곧 血을 生化시키는 氣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芍藥의 血에 대한 작용은 능히 調血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生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散하는 것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散은 通과 行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① 瘀血, 惡血

『本草經集注』“除血痺，破堅積，疝瘕，通順血脈，散惡血，逐賊血。”<sup>110)</sup>

『本草易讀』“散瘀血。”<sup>111)</sup>

惡血과 瘀血을 散하고 血脈을 通하게 한다.

② 血滯

『本草綱目』“赤芍藥散邪，能行血中之滯。”<sup>112)</sup>

『本草匯』“散滯血。”<sup>113)</sup>

99) 汪昂 著, 張一昕 点校. 本草備要.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7. p.48.

100) 楊時泰 著.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9. pp.166-167.

101)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182.

102) 李梴 著,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註編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232.

103) 徐大椿 著. 神農本草經百種錄(徐大椿醫書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98.

104) 黃宮綉著, 趙貴銘 点校. 本草求真.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71.

105)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182.

106) 吳儀洛 著. 本草從新. 서울. 행림출판. 1989. p.30.

107) 陳嘉謨 著, 陸拯, 趙法新 校点. 本草蒙筌.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13. p.39.

108) 李梴 著.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註編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 232.

109)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495.

110) 陶弘景 著.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輯校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67.

111) 汪認庵 著. 本草易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156.

112)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495.

113) 郭佩蘭 著, 王小崗 外 3人 校注. 本草匯. 北京. 中國古籍

『本草備要』“赤散邪，能行血中之滯。”<sup>114)</sup>  
『本草求真』“赤則止有散邪行血之意。”<sup>115)</sup>  
『本草經疏』“血痺疝瘕，皆血凝滯而成，破凝滯之血則痺和而疝瘕自消。”<sup>116)</sup>

血滯를 통하게 하며 血痺疝瘕는 血이 凝滯되어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血

『證類本草』“白者止痛散血。”<sup>117)</sup>  
『湯液本草』“白者止痛散氣血。”<sup>118)</sup>  
『本草經疏』“赤者利小便散血。”<sup>119)</sup>  
『本草正』“赤者能通經破血。”<sup>120)</sup>

그냥 血을 흘는다고 하였는데 각종 血滯과 관련된 증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④ 氣

『藥性論』“通宣臟腑擁氣。”<sup>121)</sup>  
『本草備要』“白芍不惟治血虛，大能行氣。… 白芍能行營氣。”<sup>122)</sup>

일부는 氣를 通行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出版社. 2013. p.289.  
114) 汪昂著, 張一昕 点校. 本草備要.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7. p.49.  
115) 黃宮綉著, 趙貴銘 点校. 本草求真.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264.  
116)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183.  
117) 唐慎微 著, 郭君双, 金秀梅, 趙益梅 校注. 證類本草(臨床經典名著).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238.  
118) 王好古 著, 盛增秀 主編. 湯液本草(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31.  
119)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182.  
120) 張景岳 著. 校勘 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2004. p.1022.  
121) 『證類本草』에서 인용. 唐慎微 著, 郭君双, 金秀梅, 趙益梅 校注. 證類本草(臨床經典名著).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238.  
122) 汪昂 著, 張一昕 点校. 本草備要.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7. p.48.

⑤ 月事 관련  
『日華子本草』“通月水.”<sup>123)</sup>  
『本草匯』“通血閉.”<sup>124)</sup>

월경을 통하게 한다고 하였다.

⑥ 기타

『長沙藥解』“散胸脅之痞熱.”<sup>125)</sup>  
『醫學入門』“通肺燥 … 宣通臟腑.”<sup>126)</sup>

痞熱을 흘고 肺燥와 臟腑를 통하게 한다고 하였다. 肺燥를 통하게 하는 것은 臟腑의 氣를 통하게 하여 津液을 肺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收의 대상은 氣, 陰氣 및 津液이라고 할 수 있으며, 散의 대상은 瘀血, 惡血, 血滯, 血, 氣로 주로 血이며 간혹 氣라는 설명도 있었다. 따라서 收散의 대상이 각각 氣와 血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收散의 대상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收의 결과로 汗, 下利 및 逆氣 등의 곁으로 새는 증상이 치료된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津液, 陰氣, 脾經 陰氣, 肝之陰氣은 陰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은 증가하며 補가 된다. 반면 胃氣, 木氣 및 生發之氣는 陽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은 감소하며 瀉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收함으로써 陰氣를 補하고, 陽熱을 瀉함으로써 益氣와 瀉熱이 공존 할 수 있게 된다.

散의 결과로 瘀血과 뭉친 것이 없어지며 通經 血行하게 된다. 이 작용은 瀉에 해당하는데, 散의 대상에서 補하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문헌에서 散으로 補한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日華子本草』에서 “赤色者補氣, 白者治血.”이라고 하였고 이를 『本草綱目』에서 『大明』으로 인용하면서 “赤者

123) 日華子 著. 尚志鈞 輯校. 日華子本草 蜀本草 合刊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8.  
124) 郭佩蘭 著. 王小崗 外 3人 校注. 本草匯.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2013. p.288.  
125) 黃元禦 著. 長沙藥解(黃元禦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87.  
126) 李樞 著.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註編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 232.

補氣, 白者補血”라고 하여 赤芍藥 또한 補氣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赤芍藥의 散하는 효능을 氣의 작용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血中之氣에 따른 補血의 효능이 직접적이거나 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散에서 補가 없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散의 대상이 거의 대부분 血에 속하며, 散 작용과 血中之氣의 작용이 유사하게 破瘀血, 行血하게 하므로 芍藥의 散 작용은 血中之氣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서 芍藥은 血中之氣를 조절한다는 결론을 내었으므로, 芍藥의 散 작용은 血中之氣를 조절하는 것을 통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收와 散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芍藥은 수렴하여 陰血分의 氣를 모으고, 陰血分의 氣에 조절하는 작용을 하여 結滯를 깨뜨리고 疏通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芍藥의 補瀉 효능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芍藥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때에는 병증의 虛實을 감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芍藥의 補와 瀉 효능 중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芍藥의 禁忌에 대한 논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 芍藥의 禁忌

역대 문헌에서 芍藥을 쓰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本草衍義』 “然血虛寒人禁此一物。古人有言曰, 減芍藥以避中寒, 誠不可忽.”<sup>127)</sup>

『本草綱目』 “產後肝血已虛, 不可更瀉, 故禁之。酸寒之藥多矣, 何獨避芍藥耶.”<sup>128)</sup>

『本草經疏』 “白芍藥酸寒。凡中寒腹痛 中寒作泄 腹中冷痛 腸胃中覺冷等證忌之。赤芍藥破血 故凡一切血虛病 及泄瀉 產後惡露已行 少腹痛已止 癰疽已潰 並不宜服.”<sup>129)</sup>

127) 『證類本草』에서 인용. 唐慎微 著, 郭君双, 金秀梅, 趙益梅 校注. 證類本草(臨床經典名著).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238.

128)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p495.

129)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本草備要』 “瀉痢俱太陰病, 不可缺此, 寒瀉冷痛 忌用 … 產後俱忌用.”<sup>130)</sup>

『本草新編』 “或問芍藥有不可用之時, 先生之論, 似乎無不可用, 得毋產後亦可用, 而傷寒傳經亦可用乎曰: 產後忌芍藥者, 恐其引寒氣入腹也, 斷不可輕用. 即遇必用芍藥之病, 隻可少加數分而已. 若傷寒未傳太陽之前, 能用芍藥, 則邪尤易出. 惟傳入陽明, 則斷乎不可用. 至于入少陽, 厥陰之經, 正須用芍藥和解, 豈特可用而已哉.”<sup>131)</sup>

요약하면 芍藥의 사용을 금해야 하는 경우는 血虛寒, 產後, 腸胃에 냉감이 느껴지는 경우, 寒瀉하며 冷痛이 있는 경우이다. 이때에도 다른 약과 배합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sup>132)</sup> 虛와 寒의 상태에서 쓸 수 없다는 것은 補를 중심으로 하는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陰結이 없는 경우에 芍藥을 쓰면 안 된다고 설명한 문헌도 있다.

『本經疏證』 “脈得諸托動微緊, 男子失精, 女子夢交, 桂枝龍骨牡蠣湯主之. 火邪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主之. 二證迥乎不同, 二湯相異僅芍藥一味, 其同其異, 必能別之, 而後芍藥之用可著也.

2012. p.183.

130) 汪昂 著, 張一昉 點校. 本草備要.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7. p.49.

131) 吳儀洛 著. 本草從新. 서울. 행림출판. 1989. p.101.

132) 楊時泰 著. 本草述鈞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9. pp.168-169. “抑又謂氣虛寒者, 禁用芍, 是說信否. 曰, 陰能育乎陽而陽郁者, 以升陽爲主, 此味在所當忌. 若陰不能育乎陽而陽亢者, 則以收陰爲主, 此味正所急需, 但氣虛者多由耗散其陰中之陽, … 補陽而投此, 以爲陽之主, 誰曰不宜.”

黃宮綉 著, 趙貴銘 點校. 本草求真.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70. “產後不宜安用者 以其氣血既虛 芍藥恐伐生氣之意也 … 然用之得宜 亦又何忌 … 如仲景黑神散 芍藥湯 非皆產後要藥耶 惟在相證明確耳”

張景岳 著. 校勘 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2004. p.1022. “此物乃補藥中之稍寒者, 非若極苦大寒之比. 若謂其白色屬金, 恐傷肝木, 寒伐生氣, 產後非宜, 則凡白過芍藥, 寒過芍藥者, 又將何如? 如仲景黑神散·芍藥湯之類, 非皆產後要藥耶?”

吉益東洞 著, 李政桓, 丁彰炫 譯. 藥徵. 서울. 청흥. 2007. p.156. “若乃酸寒伐生發之氣, 及瀉木之說, 此鑿空之論, 而非疾醫之用也.”

… 若少腹弦急，則陰結也，其不由陰結者，必因驚怖，陽氣上出，陰氣下流也。陰氣下流，復用芍藥，是爲更虛其虛，必至陰氣亦溢，追逐陽氣，陽氣無所駐足，拔隊外亡，… 其由陰結者，則以陽不得入也，若用芍藥，陰結既破，陽氣遂布，陰陽和調，氣日生而血自益”<sup>133)</sup>

『本經疏證』에서는, 桂枝龍骨牡蠣湯證은 陰結로 인해 양이 不布, 不得入하는 경우에는 芍藥을 쓸 수 있으나,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證에서는 陽氣가 떠버리고[上出], 陰氣가 아래로 내려 갈 때[下流]에는 芍藥을 쓰면 더욱 넘쳐서 더 虛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證의 虛한 상황에서 芍藥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補보다는 瀉에 더 비중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芍藥의 상반된 補瀉 효능은, 수렴을 통하여 陰血分의 氣를 모으고 이를 조절하는 것이며, 특히 補보다는 瀉에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고찰

역대 각종 문헌을 통해 芍藥의 補瀉효능을 살펴 보았을 때 설명이 분분하였는데, 몇몇 문헌들은 芍藥의 효능을 瀉에 치중하거나, 補에 치중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赤芍藥과 白芍藥의 효능 구분에 대해서도 적백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한 문헌과 赤芍藥과 白芍藥이 효능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 작용이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문헌들이 있었다.

芍藥의 전체 효능을 정리하면, 補法과 瀉法 이외에도 補瀉로 분류하기 힘든 通法과 기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芍藥이 補하는 대상은 氣, 血, 津液, 肝, 脾胃이며, 瀉하는 대상은 惡血, 水, 熱, 火, 痛 이다. 여기서 상반되는 작용인 益氣와 瀉熱, 散惡血과 補血이다. 이들이 상반되는 작용인 이유는 散惡血과 補血의 경우 동일한 血에 작용이 반대이기 때문이며, 益氣와 瀉熱의 경우 氣는 溫煦作用을 가

지므로 益氣의 결과는 보통 溫하게 되나 瀉熱은 반대로 熱을 식혀 冷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芍藥의 상반된 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전을 밝혀내야하는 효능은 散惡血과 補血, 益氣와 瀉熱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散惡血과 補血은 血中之氣의 개념을 중심으로 공존이 가능하였다. 散惡血과 補血을 같이 할 수 있는 當歸, 川芎과의 비교를 통해 芍藥의 散惡血과 補血 효능이 血中氣를 통하여 서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즉 當歸, 川芎, 芍藥의 공통점은 보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血을 行하게 하여 血의 鬱滯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川芎은 보다 氣에 가까워 울체를 푸는 힘이 강하고 當歸는 보다 血에 가까워 補血하는 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芍藥의 生血하는 작용은 當歸보다 약하고 破血하는 작용은 川芎보다 약하여, 단지 血中氣를 조절하여 氣結을 깨고 生血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益氣와 瀉熱은 수렴된 陰分의 氣가 疏通하는 기전의 유사성이 있었다. 이때 益氣는 補脾氣, 補腎氣, 益血中之氣, 斂肝氣 등으로 설명되었고, 작용하는 부위는 肝, 脾, 腎, 血로 陰分에 해당한다. 즉, 收陰氣, 斂逆氣, 肝氣斂함으로써 陰分의 氣를 더하여 결과적으로 理中氣, 血行함을 일 수 있다.

또한 瀉熱은 收陰氣, 補血, 行血, 涼血, 土實則金肅등으로 설명되었고, 瀉熱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주로 血分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血中氣의 작용이 行血, 統血, 溫經 등이므로 血中氣를 調하여 瀉熱이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土實則金肅’은 補脾氣와 관련이 있고 脾는 至陰에 해당하므로 역시 陰分의 氣를 補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血分은 陰分에 포함되므로 收陰氣도 血中之氣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益氣와 瀉熱의 작용을 정리하면 수렴된 陰分의 氣가 疏通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렴과 소통의 개념 역시 상반된 의미가 있으므로, 역대 문헌에서 收와 散에 대한 설명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收의 대상은 氣, 陰氣 및 津液이었으며, 散의 대상은 血이므로 작용하는 대상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收의 결과로 汗,

133) 鄒澍 著, 김선호 주석. 本經疏證 下. 대전. 주민출판사. 2012. pp.35-36.

下利 및 逆氣 등의 길으로 새어나오는 증상이 치료 되는 동시에 津液, 陰氣, 脾經 陰氣 등 陰에 속하는 것은 증가하여 補가 되었다. 반면 胃氣, 木氣, 및 生發之氣 등 陽에 속하는 것은 감소하여 瀉가 되었다. 즉, 氣를 收함으로써 陰氣를 補하는 동시에 陽熱을 瀉하여 益氣와 瀉熱이 공존 할 수 있다. 반면 散의 결과로 瘀血과 멎친 것이 없어지며 通經, 血行하게 되는데, 이 작용은 瀉에만 해당한다. 문헌 상 散으로 補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단 『日華子本草』에서 “赤色者補氣, 白者治血.”이라고 하였고 『本草綱目』에서 “赤者補氣, 白者補血.”이라고 하여 赤芍藥 또한 補氣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赤芍藥의 散하는 효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散의 작용을 통하여 血中之氣가 行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補血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散의 대상이 거의 대부분 血에 속하고, 散의 작용이 血中之氣의 그것과 유사하게 破瘀血, 行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芍藥의 散하는 작용은 血中之氣의 조절을 통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문헌들 가운데 芍藥이 脾를 補한다는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芍藥이 陰分이나 血分の 氣를 모으고 이를 조절함으로써 血을 생하거나 疏通하게 하는 작용이 곧 統血, 生血, 運化하는 脾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다.

芍藥의 상반된 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효능을 통합하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芍藥은 수렴 작용을 통하여 血分으로 氣를 모으고, 충만한 血中の 氣가 조절됨으로써 血이 원활히 흘러서 瘀血을 없애고, 결과적으로 血을 생하고 熱을 내리게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用藥 시 補와 瀉의 비중을 살펴보면, 芍藥의 禁忌에 대하여 血虛寒, 産後, 腸胃 등에 냉감이 느껴지는 경우와 寒瀉와 冷痛이 있는 경우 등 몇몇 虛한 상황에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補보다 瀉에 더 비중이 있다고 추정된다.

#### IV. 결론

역대 문헌을 통해 芍藥의 補瀉 효능에 대해 고찰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역대 문헌에서 芍藥의 효능을 정리한 결과, 補法과 瀉法 이외에도 補瀉로 분류하기 힘든 通法과 기타로 분류할 수 있었고, 芍藥이 補하는 대상은 주로 氣, 血, 津液, 肝, 脾胃 등이며, 瀉하는 대상은 주로 惡血, 熱, 火, 痛 등이었다. 또한 芍藥의 상반된 효능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작용을 밝혀내야하는 효능은 散惡血과 補血, 益氣와 瀉熱로 귀결되었다.
2. 散惡血과 補血은 血中之氣의 개념을 통하여 공존이 가능하였다. 當歸, 川芎도 散惡血과 補血을 같이 할 수 있으나, 芍藥의 生血은 當歸보다 약하며 破血은 川芎보다 약하며, 단지 血中氣를 조절하여 氣結을 깨고 生血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益氣와 瀉熱의 효능에 대하여, 益氣는 補脾氣, 補腎氣, 益血中之氣, 斂肝氣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瀉熱은 收陰氣, 補血, 行血, 涼血, 土實則金肅 등으로 이루어졌었다. 益氣와 瀉熱은 수렴된 陰分の 氣가 疏通하는 작용의 유사성이 있었다.
4. 芍藥의 收散 작용을 살펴본 결과, 收를 통하여 津液, 陰氣, 脾經 陰氣 등을 補하며 胃氣, 木氣 및 生發之氣 등을 瀉하여, 益氣 및 瀉熱의 공존과 관련이 있었다.
5. 芍藥의 收散 작용에서 散의 대상은 주로 血이며, 散의 결과로 瘀血과 멎친 것이 없어지며 通經 血行하게 된다. 散의 작용은 瀉에 해당하나 芍藥의 경우는 血中氣를 調하면서 補血과 일부 연결될 수 있었다.
6. 芍藥의 금기를 검토한 결과, 血虛寒, 産後, 腸胃에 냉감이 느껴지는 경우 등과, 寒瀉하며 冷痛이 있는 경우 등의 몇몇 虛한 상황에서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 補瀉 중 瀉에 더 비중이 있다고 추정된다.
7. 芍藥의 서로 다른 효능의 작용을 분석해 본 결과 통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芍藥은 수렴 작용을 통하여 血分으로 氣를 모으

고, 충분한 血中の 氣가 조절됨으로써 血이 원활히 흘러서 瘀血을 없애고, 결과적으로 血을 생하고 熱을 내리게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 Reference

- 郭佩蘭 著, 王小崗 外 3人 校注. 本草匯.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2013.
- 唐慎微 著, 郭君双, 金秀梅, 趙益梅 校注. 證類本草(臨床經典名著).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 陶弘景 著,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輯校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 刘文泰 著, 曹暉 校注. 本草品匯精要. 北京, 花夏出版社. 2004.
- 劉世間 著,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素問 病機氣宜保命集(金元四大家 醫學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 李時珍 著.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7.
- 李梴 著.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註編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 繆希雍 著. 神農本草經疏.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 朴贊國 譯註.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科주. 集文堂. 2005.
- 徐大椿 著. 神農本草經百種錄(徐大椿醫書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 楊時泰 著. 本草述鈞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9.
- 楊時泰 著. 本草述鈞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9.
- 吳儀洛 著. 本草從新. 서울. 행림출판. 1989.
- 汪昂 著, 張一昕 點校. 本草備要.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7.
- 汪認庵 著. 本草易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 王好古 著, 盛增秀 主編. 湯液本草(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 李東垣 著,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蘭室秘藏(金元四大家 醫學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 李東垣 著,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脾胃論(金元四大家 醫學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 張潔古 著. 金容辰 趙學俊 編譯. 懸吐完譯 醫學啓源. 대전. 周珉出版社. 2003.
- 張景岳 著. 校勘 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鼎談. 2004.
- 張志聰 著, 劉小平 點校. 本草崇原.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8.
- 全國韓醫科大學 生理學 教授 編著. 改訂版 東醫生理學. 科주. 集文堂. 2008.
- 周岩 著, 陸拯 點校. 本草思辨錄.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13.
- 陳嘉謨 著, 陸拯, 趙法新 校點. 本草蒙筌.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13.
- 陳士鐸 著, 柳長華, 徐春波 校注. 本草新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 鄒澍 著, 김선호 주석. 本經疏證. 대전. 주민출판사. 2012.
- 華子 著, 尙志鈞 輯校. 日華子本草 蜀本草 合刊本. 人民衛生出版社. 1994.
- 黃宮綉 著, 趙貴銘 點校. 本草求真.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 黃元禦 著. 長沙藥解(黃元禦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 郭振環, 曲夷. 『傷寒論』芍藥破陰結功用探析.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16. 40(1).
- 劉萍. 芍藥白芍赤芍的歷代本草考證淺析. 中華中醫藥雜誌. 2018. 33(12).
- 李華, 姜秀清. 芍藥氣味功效芻議. 國醫論壇. 1996. 1.
- 방정균. 『傷寒論』處方 속의 芍藥 效能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10. 23(1).
- 小熊亮子. 古代本草著作中白芍赤芍之研究. 北京中醫藥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35. 楊學峰. 白芍藥功用辨析. 中國中醫藥報. 2003-05-01.
36. 陳文照. 『傷寒論』方芍藥功用補遺. 浙江中醫學院學報. 1991. 1.
37. 祝之友. 赤芍白芍古今應用探究.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6. 14(12).